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랑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석기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회는 80명 이내의 심의위원 Pool 제를 구성하고 심의회회는 13명 이내 윤번제로 시행하여 왔으나 2017년 11월부터는 고정된 20명의 심의위원만이 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명 고정 심의제로 변경된 후 작품의 질은 변동이 없는데도 심의 통과율이 65%에서 39%로 크게 하락했고 연속해서 7번 부결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제한적인 심의로 인한 과도한 비용발생과 건축물 사용 지연 등 부정적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제왕적인 위원회”라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이 법의 목적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및 시각의미를 표현하는 미술작품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창의적인 감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 세계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하여 대한민국을 빛낸 봉준호 감독은 수상소감으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는 말로 예술을 추구하는 관점이 획일적인 것이 아닌 다양성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회는 공정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약150명 이내의 Pool제로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심의회도 현행 20명의 폐쇄적인 심의방식에서 개방적인 Pool제로 변경하여 시민 중심의 창의적인 심의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